

## 자파의 욕심

6학년 8반 7번 김지훈

학교에서 “알라딘”이라는 애니메이션 실사화 영화를 봤다. 내가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캐릭터는 자스민,알라딘,자파 중에서 자파 라는 캐릭터이다.

자파는 2인자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1인자가 되고싶어하고 탐욕과 권력 욕심이 많은 사람이며 남의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성격을 가졌다. 1인자가 되기위해 모든 방법을 사용한다. 자파는 술탄이 되기위해 알라딘이 가지고 있는 요술램프를 뺏으려고 한다. 결국 알라딘은 가지고 있는 요술램프를 뺏기게 되고 자파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게된다. 나도 자파처럼 남이 가진 물건을 탐한적이 있다. 하지만 자파처럼 흠치진 않았다. 자파는 지니에게 가장 강하게 만들어달라고 하다가 결국 요술램프 속으로 들어가게됐다. 그리고 알라딘 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알라딘이 처음에 지니한테 꼭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말했는데 진짜로 마지막에 약속을 지키는것 이었다. 왜 인상깊었냐면 약속을 지키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 소원을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지니와 한 약속을 지키기위해 지니를 사람으로 만들어준거였다. 나도 알라딘처럼 친구와 한 약속을 지킨 적이 있다. 무슨 약속 이었냐면 최근에 친구와 라면을 먹자는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라면을 내가 사줬다. 그 친구가 나한테 콜라 슬러시를 사줬는데 나중에 값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돈 대신 라면을 사달라고 해서 라면을 사주게 되었다. 나도 알라딘 처럼 이 영화를 보고나서 나도 저렇게 약속을 지켜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

내가 이 영화를 보고나서 느낀점은 별로없다. 그래도 굳이 머리에서 뽑아 낸다면 자파는 2인자면 꽤 높은 지휘 인데도 1인자의 자리를 넘보는게 이해가 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느낀점이 매우 적지만 난 재밌게 보았다.

《 끝 》